



보이십니까?

청 렬(淸廉) [명사]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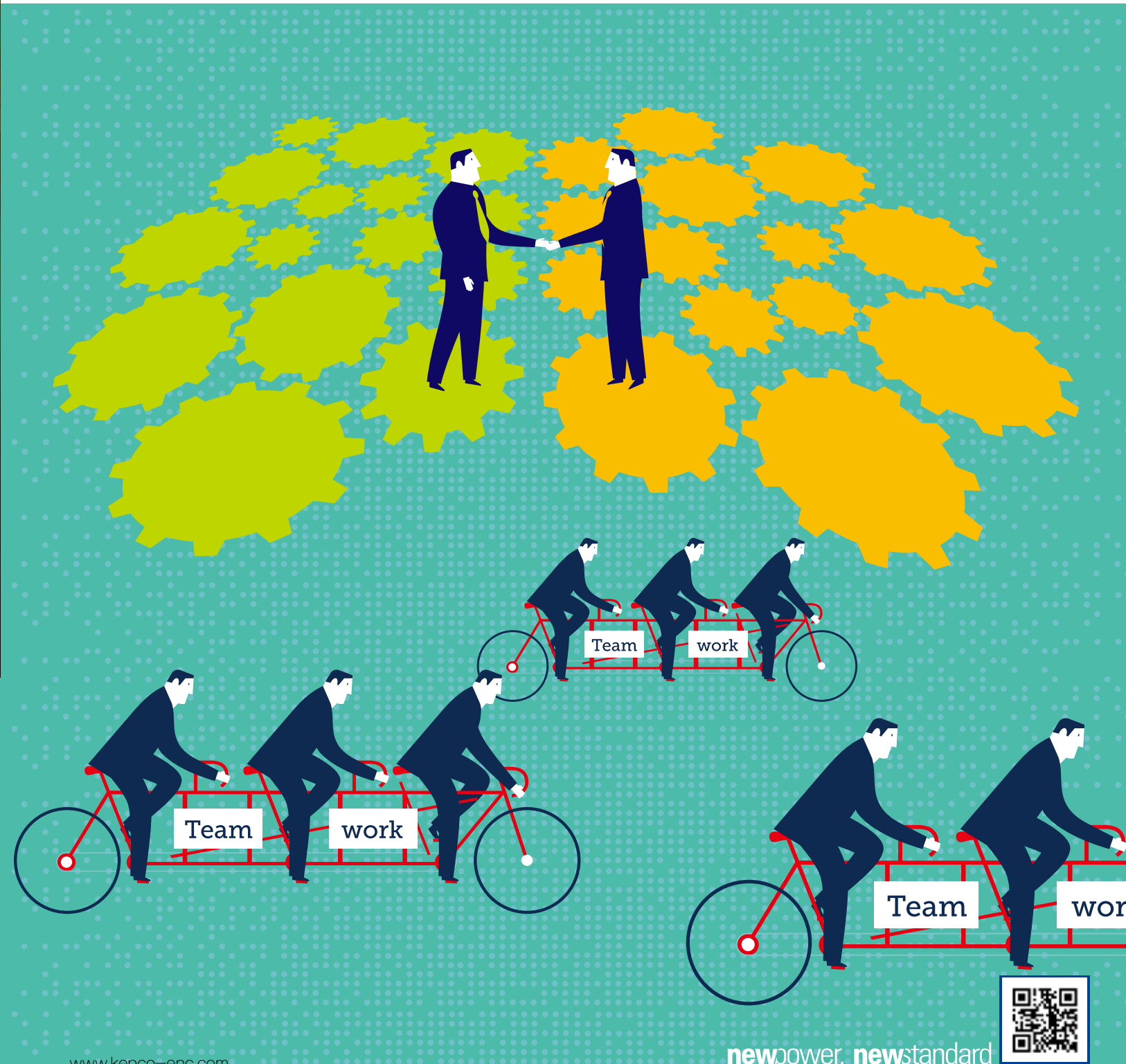
싱싱한 대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를것 같은 대나무가 어느 부분이 막혀 땅의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색을 잃고 썩어갑니다. 막힌 것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썩어갈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는 푸르른 대나무처럼 아름답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썩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이 제모습을 잃어갈때 공동체도 썩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Happy Togeth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

201611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6년 11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전력그룹사 동반성장 상호협력 협약 체결 외

08 **청백리** | 청렴윤리 내실 다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 **우체통** |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14 **일하며 즐기며** | 한울현장 한마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외

24 **문예** | 우리 엄마는 귀신! 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30 **Storytelling** | 조부의 조부까지 빼대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 엄격한 과거시험 응시자격

32 **기자칼럼** | 부정청탁금지법 적응기

34 **생활과 과학** | 꿀칫거리 바퀴벌레의 놀라운 능력

36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2016년도 제7차 이사회 개최 외

42 **한기氏の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6 **인포메이션** | 허리 디스크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배상액

47 **에코포토** | 고맙구나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통권 418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6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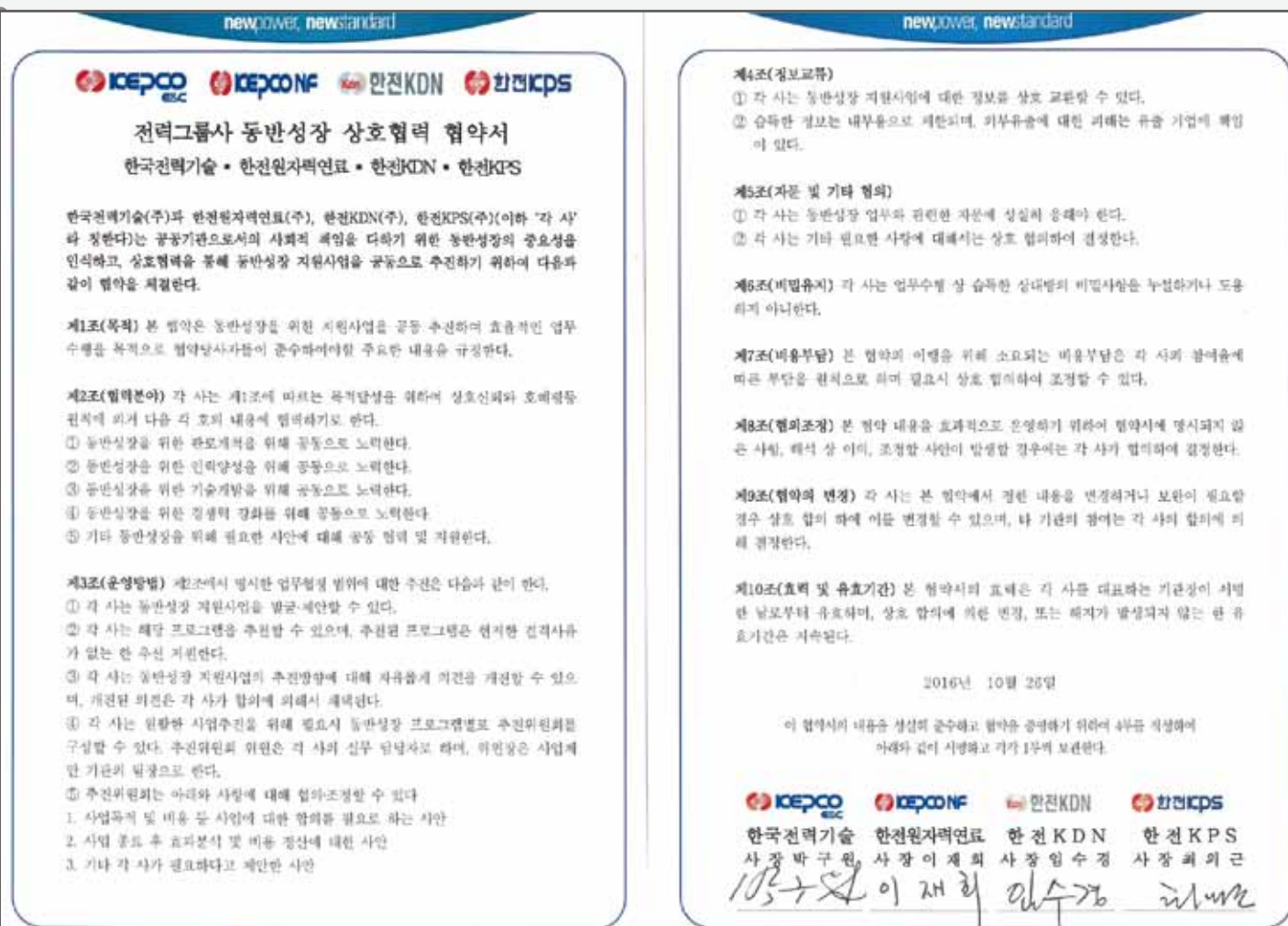
전력그룹사 동반성장 상호협력 협약 체결

- 한국전력기술 / 한전원자력연료 /
한전KDN / 한전KPS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그룹 4개사는 10월 26일 전력그룹사 동반성장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력그룹사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시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그룹 4개사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지원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4개 기관은 동반성장을 위한 판로개척 / 인력양성 / 기술개발 / 경쟁력 강화에 상호협력하고 동반성장사업 제안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박구원 사장, 한전원자력연료 이재희 사장, 한전KPS 최외근 사장, 한전KDN 임수경 사장은 "전력그룹사 공동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체결은 향후 전력그룹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진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협력업체와 원전 설계품질 증진 다짐

- 협력업체 초청 'Quality Day' 개최

회사는 10월 26일 원전의 설계품질 증진을 위한 협력업체 초청 'Quality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업체와 원전의 품질인식 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와 28개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전 품질 및 안전문화 인식 공유 △협력업체 평가제도 및 하도급업체 품질감사 현황 △협력업체 품질보증활동 우수사례 전파 △협력업체 품질관련 품질현안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호원대학교 김천용 교수가 초청되어 '품질과 안전문화'에 대한 강연을 했다. 김천용 교수는 타 산업분야의 품질 및 안전 사례와 함께 품질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품질시스템의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품질시스템의 목표를 제품의 안전한 작동과 내구성 보장, 법적 규제 요건 및 회사 표준 준수 보장, 안전 관련 프로세스 향상 등 5가지로 정리하면서,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과 자기주장(Assertiveness)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은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전기술과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자력 산업의 품질마인드 확산과 설계품질 증진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한국발전산업 대전에서 기술상담 실시



회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16 한국발전산업 대전(Power Generation KOREA 2016)'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발

전 등 발전 6사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주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발전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10개사가 참가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판로확대의 입체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R.E.C(Repair, Engineering, Construction) 통합 기술상담관으로 참가했다.

기술상담은 기계분야 10개 업체와 계전분야 1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품 판로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제언 및 설계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다. 회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 등 중소기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창의혁신리더그룹 아카데미 개최

- '책 속에 길이 있다' 주제로
독서 발표회 및 특강 실시



회사는 10월 11일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의혁신 리더그룹 '더새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더새롬'은 임원 회의나 이사회를 보완하고 회사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창단됐다. 이날 행사는 '더새롬'의 자기개발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특별 독서 발표회, 기념메달 수여식, 전문가 특강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더새롬' 리더그룹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구원 사장은 참석자들에게 '더새롬' 선정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회사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이창건 원자력문화진흥원장이 '한국전쟁과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창건 원장은 특강에서 "에너지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역사적 사명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 가는 리더가 될 것"을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4월 창의혁신 리더그룹 '더새롬'을 창단하고, 경영회의의 참관, 사장과의 대화, '더새롬' 아카데미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새롬' 리더그룹의 활동을 권장하고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회사 비전 달성과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청렴윤리 내실 다져

- 다양한 청렴 윤리 활동으로 윤리경영 문화 확산 -



회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맞춰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실시했다.

1. 2016년도 청렴윤리주간 행사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16년도 청렴 윤리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10월 12일에는 임직원 200여명이 청렴 연극 '굿 메이커스'를 관람했다. 이 연극은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회사 직원이 겪는 상황극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10월 13일에는 본부별 윤리경영 지침이 20여명이 △교수설계와 강의 전달 △강의기법 진행 △청렴소양 강의 등 '윤리전문양성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청렴소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배양했다.

2. 직급별 맞춤

청렴윤리교육-윤리서약 실시

아울러 전직원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 청렴윤리교육을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윤리 자가진단 △청렴윤리 기본과정 △향상과정 △리더과정 △고위과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직급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온라인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대처 방안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임직원은 해당 교육 수료 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서명을 하면서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3. 고위직위자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이 밖에도 회사는 고위직위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윤리 선도를 위해 고위직위자(부장급 이상 직위자) 178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했다. 평가는 직위자 뿐만 아니라, 동료, 하위자도 실시하는 다면평가 방식이며, 평가점수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된다. 지난 상반기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24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업무 수행과정에서 비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행처럼 지나쳤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었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기점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고위직 청렴도 평가 대상을 부장급 이상 직위자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And

숨죽여 지켜보던 영화가 끝났습니다.
불이 켜지며 주제곡이 흐르고 스크린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빼곡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여운을 음미하려는 바로 그때 옆자리 친구가 재촉합니다.
야, 영화 끝났어. 빨리 나가자. 쉬 마렵다고.

제작사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은 무척 화려합니다.
눈 덮인 산 위로 별이 날기도 하고 별뿔별이
디즈니 성 위로 떨어지는가 하면 사자가 울부짖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억에 남을 만큼 오프닝 영상에는 집중되지만
엔딩 크레딧은 사람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티켓에 적힌 상영시간은 엔딩 크레딧까지
포함된 시간이라는데 불은 왜 켜까요.
서둘러 나가는 고객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이 켜지자 우루루 나가니 앉아 있기가 민망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수 속으로 합류합니다.

갑작스런 지인의 부고를 받고 문상을 갔습니다.
호실을 몰라 영안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살펴봅니다.
고인의 이름을 비롯해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이름까지 전광판이 가득합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끝나고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름들,
어쩌면 우리도 한편의 영화를 찍고 떠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이름이 많다고 해서
성공작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광판 속의
주인공은 웬지 명작을 남기고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전 실현과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과정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뜨겁게 추운 날씨 속에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설레었던 날이었다.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교육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각오를 불러일으켰지만 국제세미나실에서 회사의 비전 영상을 보면서 미래를 위한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소통

연수원 입소 후 친숙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스브레이킹과 오리엔테이션, 조별 수업들을 통해 처음 보게 된 동기들과의 거리감이 점차 줄어들었고 형님 같지만 동갑인 친구와 띠동갑의 새침한 동생들 등 각양각색의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의 나날들을 기대했다.

우리 조는 믿음직스러운 조장의 리더십으로 조별 발표와 더불어 수업과제들을 수행해 나갔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일곱 명의 조원들이 각자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며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회사의 비전중 하나인 '소통'을 이루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교육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기획력과 문서작성' 강의는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 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명강의였다. 10년을 일해도 어렵다는 문서작성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인턴사원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쉬운 예제들을 통해 설명해 주셨다. 종합시험 공부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지만 다들 졸지 않고 가장 열심히 들은 교육이었다. 아카펠라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적당한 크기의 음을 맞추므로써 조직생활에서 화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조직협력 어셈블리에서는 조별 퍼즐 맞추기를 통해 재미뿐만 아니라 경쟁 속에서의 협력과 소통, 개인 능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목표를 이뤄 나갔다.

신뢰

매일 아침 정요한 부장님께서 읽어 주시는 책 한 소절은 비록 삼분의 취침시간이기도 했지만 한 소절, 한 소절이 인생의 주옥같은 말씀이었고, 한 달간 민아의 얼굴을 보면서 아침체조를 즐기고 알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푸짐한 저녁식사와 간식들은 교육기간 동안 복부가 허리벨트를 거절하기에 충분했다. 부족한 수면시간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동기들과의 장난스러운 수다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었던 시간들은 동기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도전

본부와 팀 배치를 받기 전날, 다들 원하던 부서로 발령 받기를 기대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낮설지만 앞으로의 생활터전이 될 부서로 들어섰다. 원자력본부로 배치를 받은 나는 그동안 농를 정도로 친숙하지 않았던 동기들과 같은 부서가 되었다.



OJT 교육마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상응하는 열정을 보여드리고자 매시간 궁금한 점들을 체크하여 질의하고 하나라도 더 머리속에 넣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했다. 특히 원자력에서는 SAFETY FIRST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2달간의 OJT 교육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많은 선배님들이 자기계발을 강조하시며 지속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회사의 비전인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를 실현하도록 주문하셨기에 나만의 전문성을 갖고자 앞으로의 미래 계획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부서 생활 중 술이 약해서 회식이 굉장히 두려웠지만 다행히 술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 바쁜신 와중에도 부서 선배님들은 인턴기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배정해 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전문용어들과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PT 발표는 인턴들이 중간 중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되었으며 동시에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실무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육 기간 중 나눠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의 일부분에는 '도전'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동기들과 선배님들, 새로운 환경과 경쟁 속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힘겨웠던 5개월간의 한국전력기술 인턴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하나의 도전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또한 발전소의 기본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40기 동기생들이 과거 선배들의 열정을 이어 받아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한국전력기술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

뜨거운 원자로를 통해 발생한 증기가 터빈으로 흘러 전기를 만들어 내듯, 신입사원의 마음속 끓는 열정이 한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녹아들어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를 실현해 보리라 다짐한다. **E&C**



한울현장 한라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Writer 윤 승 욱 한울현장 부장



한울현장은 2016년 컬처데이 행사를 백두대간 협곡열차 V-train을 이용한 기차여행으로 실시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버스로는 갈 수 없는 오지중의 오지 경북 봉화 분천역에서 강원 태백의 철암역까지 4개 구간 27.7km를 시속 30km로 달리는 초저속 열차로 운행시간은 왕복 3시간 정도다. 개방형 백두대간 열차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협곡열차구간의 다양한 트레킹 코스(양원승부비경길, 체르마트길, 낙동정맥트레일)의 때문지 않은 비경을 제공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오래 전 완행으로 불리며 모든 역을 정차했던 추억의 옛날 기차 비둘기호의 추억을 되살리게 했다. 열차가 덜컹거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파란하늘처럼 기분이 경쾌했다.

좁디좁은 협곡 사이로 아래로는 절벽, 위로는 바위산이 보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울현장 직원 40여명은 열차 안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정의 고트머리에서 간단한 뒤풀이를 겸한 이번 컬처데이 행사는 풍경을 자연 그대로의 오감으로 느낀 여행이었으며, 신한울 1,2 건설 사무소와 RET사무소가 거리를 두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한울현장 직원 모두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번 여정은 아마도 현장생활이 끝나고 각자 본사로 복귀하더라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E&C**



품질안전환경처 한라음 컬처데이 행사를 마치며

Writer 이 동 기 품질안전환경처 사원



품질안전환경처는 2016년 컬처데이 행사를 직원간의 소통과 기초체력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김천시 증산면에 위치한 인현왕후길을 거닐어 보았다.

'모티길'은 경상도 사투리로서 모퉁이 길을 뜻한다. 김천시 증산면 수도·황점리의 인현왕후길, 수도녹색숲모티길과, 대항면 운수·향천리의 사명대사길 등이 김천의 대표적인 모티길이다. 김천의 모티길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굽이굽이 굽은 길 사이로 옛 사람의 사연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한다. 이 중에서도 인현왕후길은 수도산 자락에 위치하여 은은한 소나무향과 함께 짙은 녹음이 드리워진 길이다. 이 길에는 권력다툼의 희생양으로 왕비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던 인현왕후의 안타까운 사연이 서려있다.

솔향 그윽한 산책로

우리 회사 사옥에서 인현왕후길까지의 거리는 약 45km 정도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2시가 다 되어서야 인현왕후길의 입구인 수도계곡 상류 수도리주차장에 도착했다. 단체사진 촬영 후, 직원들과 함께 조용한 숲길로

들어섰다. 인현왕후길은 총 9km구간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구간이 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었다. 코스 또한 등산로라기 보다는 산책코스에 가까워 체력 소모 없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직원들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다. 트레킹 후 수도계곡 상류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니 그 동안 쌓여있던 모든 심신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지레 흑돼지

김천시 맞섬으로 소문난 큰골가든에 도착하여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정원에서 텃밭링의 도약대로 이용되는 탄력 있는 캔버스 받침대 트램펄린과 그네를 이용하여 모두 동심의 세계에 빠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응조 처장님의 건배사 제의를 시작으로 간단한 주류와 함께 향도 좋고 식감도 좋은 지레 흑돼지 삼겹살과 고추장불고기를 먹으며 컬처데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오늘 솔향 그윽한 수도계곡의 절경을 인현왕후의 숨결을 느끼며 즐겼으니 업무능률도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E&C**



하늘 아래 뫼이룬다

(대덕산우회 중국 태산, 연태산 트레킹을 다녀와서)

대덕산우회(회장 손갑현 상무)는 올해로 열 번째 해외산행을 다녀왔다.

2016년의 산행지는 우리에게 “하늘 아래 뫼이룬다”로 잘 알려진 중국의 태산이었다.

태산(1545m)은 중국의 5대 명산 중 동쪽의 산으로 오악지존(五岳之尊)으로 불릴 정도로 예로부터 신성시하여 진시황제를 비롯해 여러 제왕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봉선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동시에 지정되었다.

연태산(蓮台山, 632m)은 산동성의 성도 제남(濟南)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석회암 산으로 우리나라 등산객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현지에 도착하고서야 알았지만 사실은 한국인 등산팀으로는 우리 대덕산우회가 처음 오르는 곳이라고 했다.

이번 여정의 첫날은 현지 도착 후 제남 시내의 천연 호수 대명호와 샘물이 흐르는 흑호천을 관광하고, 둘째 날은 연태산 트레킹, 셋째 날은 태산 트레킹, 넷째 날은 제남 시내의 부용거리, 산동성 박물관, 천불산 관광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었다. 산행 인원은 대덕산우회원 9명(산행대장 박태근 부장)과 가족 4명 그리고 현지 가이드 등 모두 14명이었다. 이번 해외산행은 과거와 달리 고산의 정상 정복에 중점을 두지 않고 비교적 낮은 산을 등정하고 시내 관광을 포함했던 관계로 가족분들의 참여가 많았다.

출발(5월 21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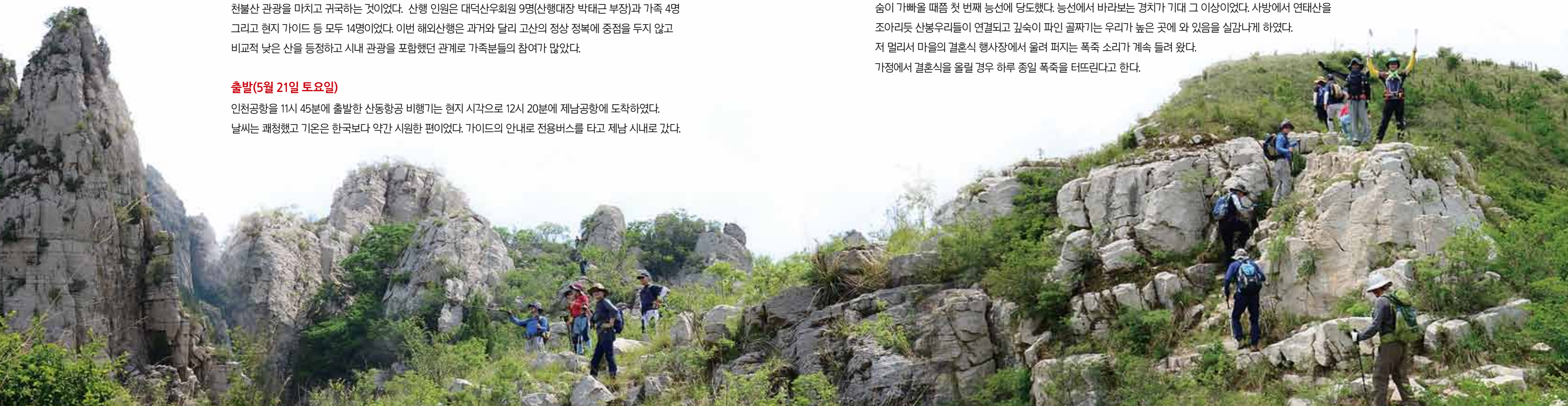
인천공항을 11시 45분에 출발한 산동항공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12시 20분에 제남공항에 도착하였다. 날씨는 쾌청했고 기온은 한국보다 약간 시원한 편이었다. 가이드의 안내로 전용버스를 타고 제남 시내로 갔다.



제남시는 인구가 700만 명을 넘는 큰 도시다. 제남시는 분지에 위치하여 중국 내에서도 여름철 기온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시내 한 복판에 있는 대명호와 흑호천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또 장마철에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대명호와 흑호천에 갔을 때가 오후 4시경이었는데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한가로운 풍광을 즐기고 천연 샘물에서 식수를 받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워를 피하여 서둘러 시내를 빠져나가 첫날 숙소인 연태빈관으로 향했다. 약 한 시간을 달려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우리가 연태빈관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교사의 인솔하에 학부모들과 같이 캠핑을 하고 있었다. 요즘 중국의 젊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우리나라에 못지않다고 한다.

산행 첫날(5월 22일 일요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룸메이트와 함께 숙소 뒤에 있는 연태산 주변을 탐사하였다. 연태산 주변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불록 솟은 산 정상 부분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흰색으로 빛나고 6부 능선 아래는 인공 조림된 향나무와 여러 종류의 활엽수가 울창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꾸려 6인승 빵차를 타고 숙소 반대편에 있는 구천동 등산로 입구로 갔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불어 트레킹 하기에 좋았다. 가이드의 안내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숨이 가빠올 때쯤 첫 번째 능선에 당도했다. 능선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기대 그 이상이었다. 사방에서 연태산을 조아리듯 산봉우리들이 연결되고 깊숙이 파인 골짜기는 우리가 높은 곳에 와 있음을 실감나게 하였다. 저 멀리서 마을의 결혼식 행사장에서 울려 퍼지는 폭죽 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가정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하루 종일 폭죽을 터뜨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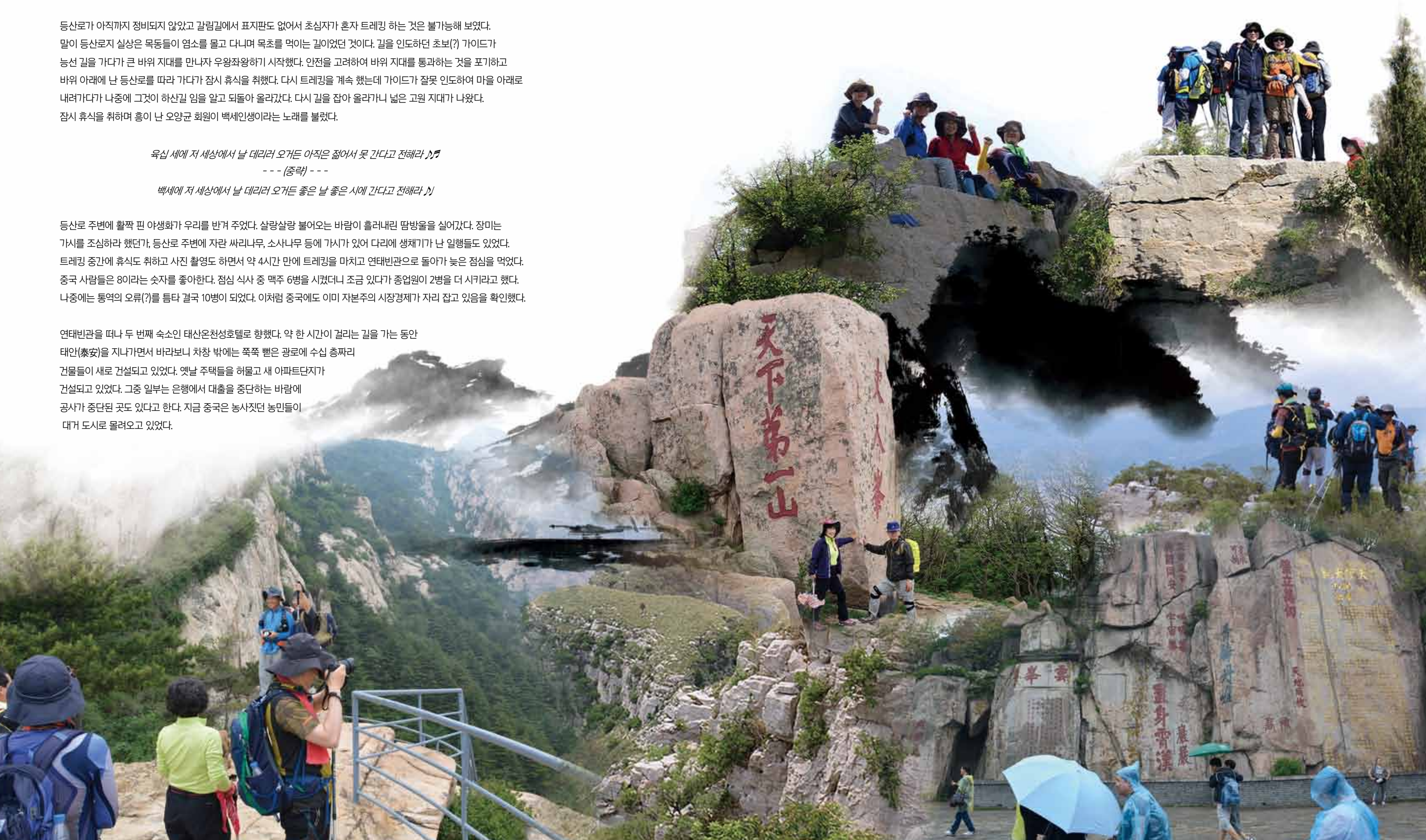
등산로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고 갈림길에서 표지판도 없어서 초심자가 혼자 트레킹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말이 등산로지 실상은 목동들이 염소를 몰고 다니며 목초를 먹이는 길이었던 것이다. 길을 인도하던 초보(?) 가이드가 능선 길을 가다가 큰 바위 지대를 만나자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안전을 고려하여 바위 지대를 통과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위 아래에 난 등산로를 따라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시 트레킹을 계속 했는데 가이드가 잘못 인도하여 마을 아래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그것이 하산길임을 알고 되돌아 올라갔다. 다시 길을 잡아 올라가니 넓은 고원 지대가 나왔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흥이 난 오양균 회원이 백세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ㄴㄹ
 --- (중략) ---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ㄴ

등산로 주변에 활짝 핀 야생화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흘러내린 땀방울을 실어갔다. 장미는 가시를 조심하라 했던가, 등산로 주변에 자란 싸리나무, 소사나무 등에 가시가 있어 다리에 생채기가 난 일행들도 있었다. 트레킹 중간에 휴식도 취하고 사진 촬영도 하면서 약 4시간 만에 트레킹을 마치고 연태빈관으로 돌아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점심 식사 중 맥주 6병을 시켰더니 조금 있다가 종업원이 2병을 더 시키라고 했다. 나중에는 통역의 오류(?)를 틈타 결국 10병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도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태빈관을 떠나 두 번째 숙소인 태산온천성호텔로 향했다. 약 한 시간이 걸리는 길을 가는 동안 태안(泰安)을 지나가면서 바라보니 차창 밖에는 쪽쪽 뽀는 광로에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새로 건설되고 있었다. 옛날 주택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고 한다. 지금 중국은 농사짓던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오고 있었다.





태산온천성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호텔 건너편에 있는 온천탕으로 이동했다. 중국에 가면 늘 그 시설물의 규모에 놀라곤 한다. 그곳 온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물 내에는 수영레인이 4개인 수영장, 안마 시설, 탕 등이 있고 건물 밖에는 산길을 따라 우유탕, 장미탕, 당귀탕, 하수오탕 등 10개가 넘는 노천탕이 있었다. 약 2시간의 온천욕을 마치고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온천탕 주변 호수공원을 한가롭게 산책하였다. 어둠이 깔리자 이번 산행의 느낌에 대해 일행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밤하늘에 낮게 깔린 구름이 밝게 빛나야 할 별들을 가리고 있었다. 그 의미를 다음 날 태산에 오르고서야 알게 되었다.

산행 둘째 날(5월 23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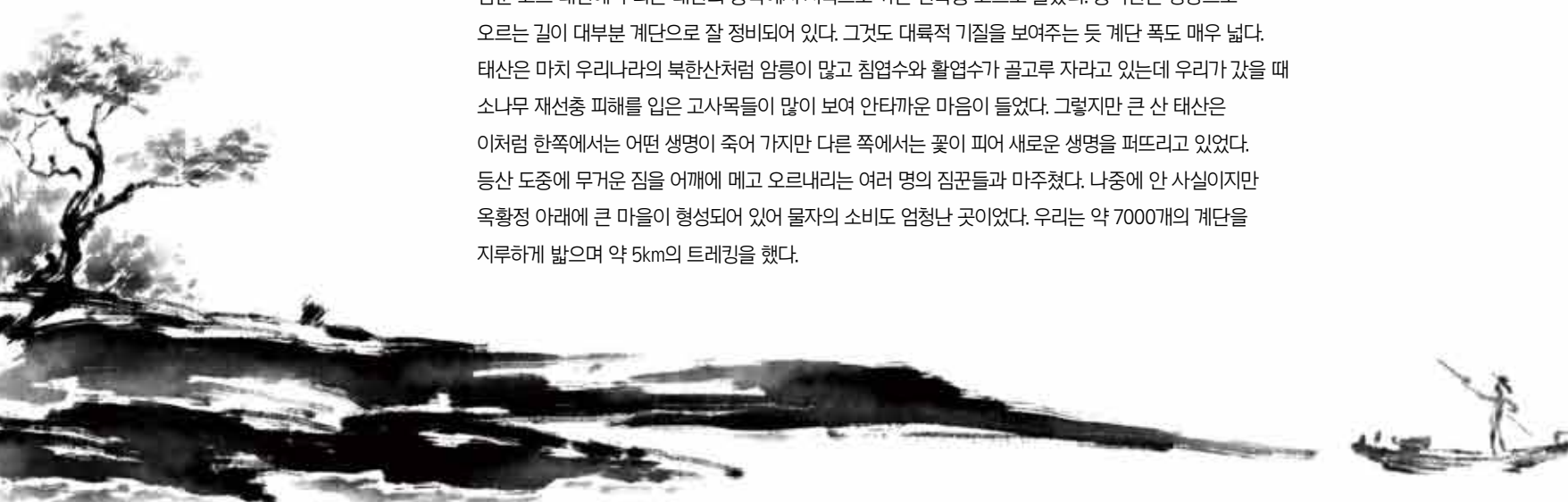
일찍 일어나 전신 스트레칭과 함께 온천장 호수 주위를 산책하였고 조식을 마친 후 전용 버스에 올랐다. 하늘이 흐리긴 해도 금세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다. 어제 지나갔던 태안을 거쳐 이번 산행의 하이라이트인 태산으로 향했다. 산행로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매표소 앞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데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태산의 정상인 옥황정으로 오를 때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들이 가는 남문 코스 대신에 우리는 태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천축봉 코스로 올랐다. 중국산은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대부분 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것도 대륙적 기질을 보여주는 듯 계단 폭도 매우 넓다. 태산은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산처럼 암릉이 많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골고루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은 고사목들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큰 산 태산은 이처럼 한쪽에서는 어떤 생명이 죽어 가지만 다른 쪽에서는 꽃이 피어 새로운 생명을 펴뜨리고 있었다. 등산 도중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오르내리는 여러 명의 짐꾼들과 마주쳤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옥황정 아래에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물자의 소비도 엄청난 곳이었다. 우리는 약 7000개의 계단을 지루하게 밟으며 약 5km의 트레킹을 했다.



옥황정에 도착하자 빗줄기가 제법 거세졌다. 산 아래는 운해가 피어오르며 시야가 나빠졌다. 1543m에 있는 옥황정은 향불 연기가 자욱했다. 중국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빗속에서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느라 북적였다. 옥황정에서 내려와 남문으로 향하는 하산 길을 가다보면 황제가 남긴 글귀들이 무수히 새겨진 거대한 바위를 만난다. 내리는 비가 운해로 바뀌어 태산 전체를 휘감으며 송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에 송(宋)나라 때 시인 예적(倪迪)이 지은 유제태산(留題泰山)이란 바위에 새겨진 칠언율시(七言律詩)를 만났다.

下列群山谷萬道(하열군산곡만도) - 아래 수많은 산골짜기는 만 갈래로 뻗어 있고,
霞瑞重重絕頂高(하서중중절정고) - 길한 노을이 겹겹이 매우 높게 빛나는구나!
獨判天涯第一尊(독판천애제일존) - 홀로 생각건대 하늘 아래 제일봉이 분명한데,
洞天深影無人到(동천심영무인도) - 신선이 산다는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네!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여 약 한 시간여 버스를 타고 다시 제남시로 갔다. 마침 퇴근 시간이라 시내 도로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차량이 뒤엉켜 무질서한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여행사에서 근사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야 말로 산해진미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일행들은 요리의 이름은 몰라도 맛은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다. 천성공원(泉城公園)에 인접한 호화로운 호텔에서 마지막 단잠에 빠져들었다.



귀국(5월 24일 화요일)

돌아오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19시 10분으로 하루 종일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아침에 천성공원에 가보니 넓은 광장에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집단체조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탕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태극권 하는 사람들, 검무 하는 사람들, 새를 파는 사람들, 옷통을 벗고 서너 명이 어울려서 제기차기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 다시 천성공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분수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분수 쇼를 관람하고 옛 전통시장이라는 부용거리에 갔더니 스넥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재작년에 갔던 성도(成都)의 금리거리 보다 못했다. 다시 이동하여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천불산공원으로 갔다. 천불산공원은 거대한 황금보살상과 제남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펜카를 타고 황금보살상 앞 주차장에 내려 약 30m 높이의 거대한 황금보살상 옆을 지나 천불산 정상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가워 정상에 도착하니 땀이 났다. 불어오는 바람에 땀을 날리며 시내를 바라보니 저 멀리 북쪽으로 황하가 보였다. 하산하여 마지막 여정인 산동박물관에 가서 전시물을 관람했다. 산동박물관은 그 규모가 웅장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전시를 하지 않는 공간이 많아 아쉬웠다. 공자가 산동성 곡부 출신이라 기대했었는데 공자관련 유물 전시는 보지 못하였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거대한 황하의 물줄기가 구불거리며 대륙 동쪽의 황해로 들어가는 도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렸다! 이번 산행은 여유와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산행이었다. 꼭 짜인 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가야하는 산행이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런 비움의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우리 엄마는 귀신!

우리 엄마 별명은 '귀신!'

모든 사람이 들으면 무서운 별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엄마는 나의 생각을 귀신같이 알아차리신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단번에 알아맞히는 엄마 때문에 '혹시 내 몸이 투명으로 되어 있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

눈치 빠른 우리 엄마의 '심'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금요일은 방과 후 플룻 수업이 있는 날이다. 플룻은 아침에 등교할 때 들고 갈 때는 무겁고 거추장스럽지만 반짝이는 악기를 친구들에게 보여줄 때면 괜히 어깨가 쑥하고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다. 플룻은 힘이 꽤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악기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음색이 고운 멋진 악기이다.

악보를 보며 힘껏 플룻을 불고 있는데 내 친구 지윤이가 깜짝 놀라서 “난희야! 너 코피냐”라고 말했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코피를 닦았다. 다행히 코피는 많이 나지 않았고 금세 멈췄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머릿속을 스치는 아이디어 하나! 기회는 이때다! 오늘 영어 학원가기 싫었는데 딱 좋아!

나는 최대한 아픈 척을 하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코피가 너무 많이 났어. 영어 학원은 도저히 못가겠어.
지금은 멈췄는데, 또 날 것 같아. 영어 학원 갈 때 또 날 것 같아.”
눈물까지 펄펄 쏟아가며 연기를 했다.
“그래, 난희야. 아프면 영어 학원은 가지 않아도 돼. 집에 가서 좀 쉬어.”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기뻐서 “아~싸!”를 외칠 뻔 했다.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데 엄마가 또 전화를 하셨다.
“난희야! 좀 어때?”
“하늘이 막 빙빙 돌고, 코피가 계속 나.”
“그래? 어떡하지? 엄마가 지금 가볼까?”

“아니. 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영어 학원은 못 갈 것 같고.”
“괜찮아지면 학원가고, 계속 어지럽고 코피나면 학원가지 말고 엄마한테 연락 해”

엄마와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거짓말 하나까 그런지 가슴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났다. 내 계획대로 영어 학원은 안 가게 됐지만, 마음에 돌덩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시간이 좀 지나자 엄마가 들어오셨고 나의 아픈 연기는 또 시작되었다.

“엄마! 나 코피 계속 나고, 머리도 어질어질해.”

“어떡하지? 빨리 옷 입고, 엄마랑 병원 가자.

요~ 앞에 있는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주사도 쏴~걸로 한 대 맞고 오자.”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하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사는 왜? 괜찮아지고 있는데...”라고 했고, 엄마는 계속 병원을 가자고 하셨다.

주사 맞는 것은 내 계획에 없었다. 정말 울고 싶었다.

내 얼굴을 보고 엄마가 차분히 말씀하셨다.

“이상하네~ 피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옷에도 피 한 방울 없고, 피 묻은 휴지도 한 장이 없네.”

“그... 그거는... 내가... 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버려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있는데,

“난희야! 우리 난희 오늘 영어 학원가기 정말 싫었나 보네. 엄마는 아까 전에

난희 전화 왔을 때부터 난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찌지?”

눈이 휘둥그레진 나에게 엄마가 다시 말씀 하셨다.

“우리 난희는 거짓말 할 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린다.

눈빛도 자꾸 흔들려. 엄마는 다 알지. 엄마 뺏속에서 나왔는데 모를 수가 없지.”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의 뻔한 거짓말도 속아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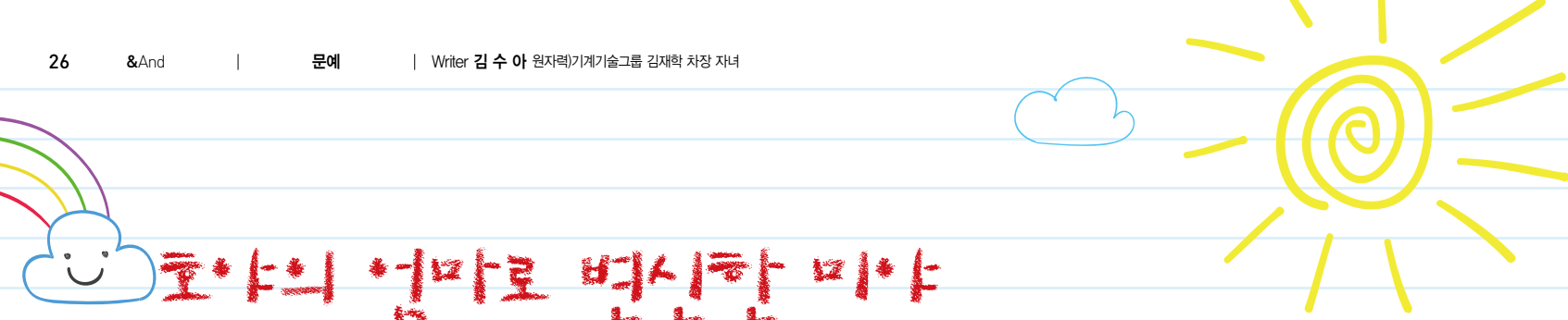
엄마가 고마웠고 미안했다.

귀신 같이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우리 엄마.

넓은 마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여서 참 좋다! E&C





호야의 엄마로 변신한 미야

- 마법의 빨간 립스틱을 읽고 -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것 같은 책을 한권 골랐다. 책 앞표지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고

제목은 ‘마법의 빨간 립스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책 속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너무 궁금했다.

립스틱은 어른들만 바르는 거여서 나는 한 번도 발라 본적이 없어서 더 이 책이 읽고 싶어졌다.



미야네 엄마께서는 백화점에서 일하시고 아빠께서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미야는 동생 호야를 돌봐주며 지낸다.

어느 날, 호야가 아파서 열이 나자 미야는 약을 사러 나갔다가 빨간 립스틱을 발견한다.

앵두처럼 투명하고 신비로운 빨간 립스틱이 미야는 마음에 들어서 입술에 살살 발라 봤더니

엄마로 변신되어 있었다.

내가 만약 미야처럼 마법의 립스틱이 생겨서 어른이 된다면 엄마처럼 마트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주스와 과자를 잔뜩 사고, 아빠께서 못 기르게 하는 하얀 강아지를 두 마리나 살 거다.

하지만 이 책에서 미야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생 호야를 위해서 립스틱을 바른다.

미야는 엄마로 변신해서 아픈 동생을 위해 병원도 가고 생일파티도 열어준다. 동생 호야는 친구의

생일파티를 제일 부러워했었는데 엄마께서는 늘 바쁘셔서 생일파티를 못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일 때마다 친구들과 키즈카페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미야와 호야의 이야기를 읽으니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야는 생일파티에 온 동생 친구들을 위해 고추장으로 떡볶이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맵다고

짜증을 내자 설탕도 한 스푼 넣어서 달달하게 해 준다. 미야가 만든 떡볶이는 분명히 맛있을 거다.

왜냐하면 호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도 호야의 생일파티에 가서

미야표 떡볶이를 먹어보고 악당놀이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동생을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던 중 짝궁 완기가 립스틱을 훔친다.

완기는 훔친 립스틱으로 낙서를 해서 거의 다 닳아 없어졌다. 한 번밖에 더 못 쓰는 립스틱을 보자

완기가 원망스럽고 미야가 불쌍했다. 미야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미야는 마지막 립스틱으로 비 오는 날 어린이집에 우산을 들고 호야를 데리러 가는데 쓴다.

알고 보니 호야의 소원은 비 오는 날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미야는 참 훌륭한 누나이고 효심이 깊은 딸인 것 같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미야와 호야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말이다.

마법의 립스틱이 정말 있어서 나는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내가 된다면 어떨까? 나는 엄마가 되서

요리도 하고 빨래를 하며 엄마의 힘든 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되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숙제를 하시며 나의 힘든 생활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사이가 서로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마법의 빨간 립스틱을 서로 바르면 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법의 립스틱도 진짜 엄마와 아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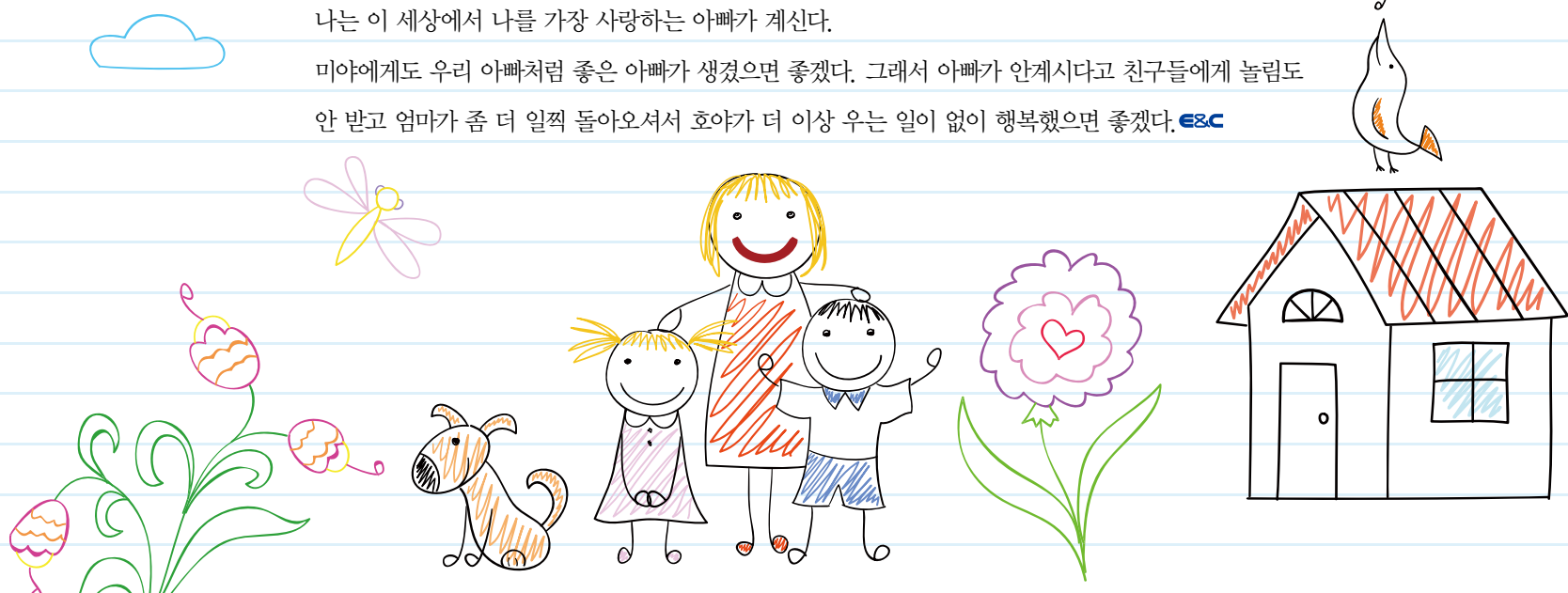
어린 동생을 잘 돌보는 미야에게는 아빠가 안 계신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항상 늦게까지

일하셔야 했고 미야와 호야는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계신다.

미야에게도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안계시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안 받고 엄마가 좀 더 일찍 돌아오셔서 호야가 더 이상 우는 일이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E&C



Communication

미술관 나들이는 힐링입니다.

출입문 밖과 안은 공기부터가 느낌이 다릅니다.

은은한 조명과 그림을 향한 몽환적 불빛이

뿜내지 않아도 정갈하고 멋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시선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음은

일상의 얼룩들이 정재 되는 듯 고요해집니다.

옆걸음으로 옮겨가는 동선에 여유가 있어 좋습니다.

절제된 말소리와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수한 눈빛들

그 느낌을 듬뿍 쏘며 나는 스르르~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다 알 것 같은.

어린 시절, 미술 시간이면 늘 막막했습니다.

하얀 도화지를 앞에 놓고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친구가 대신 그려준

그림으로 검사를 마쳤지만 선생님이 그걸 모를리 없었습니다.

성적이 수우미양가로 등급이 매겨지던 시절,

미술 실기에서의 ‘미’가 자존심을 괴롭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점수도 ‘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려다보면 우수한 사람들이 부럽기는 하지만

내려다보면 ‘양’도 있고 ‘가’도 있으니 괜찮습니다.

웃음꽃은 부잣집 담장 안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단칸 셋방에서도 다리 밑 모닥불 곁에서도 피어나는 웃음인데

지금의 삶을 너무 닻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시회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사랑하는 가족과 미술관 나들이 어떠신지요.



조부의 조부까지 뺀데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 엄격한 과거시험 응시자격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시 기 : 1623년 8월 24일 ~
1623년 9월 2일

인 물 : 김령, 김작, 김광철

주 제 : 과거시험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1623년 8월 24일, 여러 읍의 유생들이 각 도회소에 모였다. 조흥(照訢), 즉 과거시험 참가 자격을 검증 받기 위해서이다. 유생들은 관아에서 소학(小學)을 공부한 뒤에 향교에 교부하여 과거를 보도록 허락 받았다. 생원이나 진사, 초시에 응할 경우 선대로 사조(四祖)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신분과 지위가 다른 서얼은 아예 응시가 불가능했다. 시험관은 안동, 풍기, 예안 세 읍의 수령이었다. 9월 6일이나 10일 후에 시험을 볼 것이라는 공지가 있었다. 9월 2일에는 조카손자 김작과 조카 김광철이 김령을 찾아왔다. 조흥을 마치고, 소학(小學)을 함께 읽고 외우기 위해서였다.

◆ 조선시대 과거 응시생의 집안자격

조선시대 법제상으로는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민인 양인(良人)의 응시 자격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조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신분에 따르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무장을 뽑는 무과나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경우 천계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신을 뽑는 문과나 그 예비시험의 성격을 가진 생원진사시 만은 사족(士族), 즉 양반신분이 아니고는 응시하여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양반신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① 중죄인의 자손: 사직을 위태롭게 한 모반죄, 중요능참공궐을 파기한 대역죄, 국가를 배반하고 외국과 몰래 통한 모역죄,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강상죄(綱常罪), 인신위조죄(印信僞造罪) 등 중죄인의 자손은 영세금고(永世禁錮)하여 과거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또, 증수뢰(贈受賂)를 하거나, 관물(官物)을 유용하거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탐낸 관리를 장리(贓吏)라 하여 처벌하고, 그 아들에게 과거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②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죄를 지은 자: 범죄를 저질러 영영 관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자, 즉 현직 관료로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끄는 자와 고문하여 치사하게 한 자,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자, 산사(山寺)에 올라가 말뚝을 부리는 유생 등에게는 문과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③ 재가녀(再嫁女) 및 실행부녀(失行婦女)의 자손. ④ 서얼: 태종 때 만들어진 서얼금고법에 의하여 양반의 첩자손은 영원히 금고되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1553년(명종 8) 양첩(良妾)의 자손에 한하여 손자 때부터 문과와 무과 응시 자격을 주었고, 1625년(인조 3)부터는 천첩(賤妾) 자손도 증손자 때부터 응시가 가능하였다. **ER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부정청탁금지법 적응기

한동안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명확한 판단기준은 실제 처분 사례, 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법의 틀에서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부정청탁을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지금을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불편’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환영 받지 못 한’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됐으니 우리는 두 달쯤 법의 ‘맛’을 본 셈이다. 어떤 법이든 첫 도입 때에는 찬반 논란으로 시끄럽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유난히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직접적 적용 대상이 적지 않은데다, 법 시행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탓에 기업·소상공인 등도 다양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취지는 심분 공감된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조성을 반대할 이는 범법자 외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동안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

법 시행 전 정부 부처, 기업에서 만난 어느 누구에게도 “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모 공무원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는 “진짜 큰 범죄는 못 잡고 서민만 힘들게 하는 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들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빈정거리던 누군가도 “법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토를 달았다.

적어도 기자 개인 사례로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 한’ 법이었다. 기자 역시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사, 우리끼리

기자들은 취재원과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기삿거리를 발굴한다. 식사가 앞에 놓이면 경직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대화가 편해진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물론 분위기가 더 누그러진다. 술자리에서 특종이 종종 발굴되는 이유다.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가 달라졌다. 일단 기자와 취재원간 식사 자체가 대폭 줄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 때문이다. 기자는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를 주로 출입하는데, 이곳 분위기는 서울보다 한층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달 전 잡은 약속마저 깨지고, 기자가 먼저 더치페이를 제안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보자”는 대답이 돌아왔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상당수 기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이러다보니 ‘내부 전투’만 늘었다. 한동안 점심, 저녁때 같은 회사 기자들끼리, 혹은 타 회사 기자와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러 가는 모습이 많이 발견됐다.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다.

어쩌다 취재원과 식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술은 주문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계산은 자연스럽게 더치페이가 됐다. “이래저래 혼술·혼밥(혼자 먹고 마시는 술, 밥)이 대세”라는 뼈 있는 농담이 기억에 남았다.

차차 풀려가는 오해, 긴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홍보팀, 정부 부처 대변인실은 유독 고민이 컸다. “말은 업무가 ‘언론과 소통’인데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불멘소리가 나왔다. 법령 유권 해석을 두고 혼란이 컸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당초 큰 걱정과 달리 기업 홍보팀, 정부 부처 대변인실은 점차 방법을 찾아갔다. 일부 부처는 ‘브라운백 미팅’을 도입했다. 브라운백 미팅이란 도시락 등 간단한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를 말한다. 명확한 주제가 있는 브리핑 겸 식사 자리로 기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기자들은 점심시간에도 노트북을 두드리게 됐지만 소통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은 점차 풀리는 모습이다. 역지로 자제했던 미팅, 식사, 술자리가 점차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물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선을 지키는’ 모습이 병행되고 있다. 상호간 언행은 한층 조심스러워지고, 저녁 자리에서 과음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저녁 있는 삶이 이제야 가능해졌다”는 농담에 기자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청렴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과도기

부정청탁금지법의 무서움은 혐의 제기 자체에 있다. 최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등에게는 큰 타격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정성적 업무 수행마저 어려울 수 있다.

한동안 ‘악의적 선물’에 대한 농담이 떠돌았을 정도다. 특정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며 발신인을 표기하지 않으면 신고 시 당사자는 꼼짝없이 걸려든다는 얘기가. 선물을 받는 즉시 발신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 일이 있겠느냐는 법의 ‘악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불안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런 이슈가 생기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직은 ‘눈에 띄는’ 처벌 사례가 없어 잠시 불안이 감춰진 상태다. 누군가 주변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악의적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 불안은 다시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동안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명확한 판단기준은 실제 처분 사례, 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세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법의 틀에서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부정청탁을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지금을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불편’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길을 내미는 것도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ES&C**

공치거리 바퀴벌레의 놀라운 능력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희한하다 그 모습 /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달이 떠올라 오면 /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림다 그 얼굴’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라쿠카라차’라는 노래는 15세기 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스페인 민요다.

그 후 수 세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 버전이 생겨났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는 1910년 멕시코 혁명 당시 농민혁명군이 불렀던 곡이다.

그런데 흥겨우면서도 애달운 이 노래의 제목인 라쿠카라차(La Cucucaracha)는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이다. 정확히 말해서 ‘라(la)’는 여성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로서 영어에서의 ‘the’와 같고, ‘쿠카라차’가 바퀴벌레이다. 영어에서 바퀴벌레를 가리키는 ‘cockroach’도 여기서 유래한 말이다.

농민혁명군은 왜 하필 바퀴벌레를 노래했을까. 그 이유는 멕시코 농민들이 스스로를 바퀴벌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집단으로 비유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잡아 죽여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퀴벌레처럼 농민혁명군은 결국 혁명에 성공해 토지 개혁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주민, 바퀴벌레

3억5천만 년 전에 나타난 바퀴벌레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하나다. 인간은 물론 공룡보다 먼저 지구에 출현한 것. 이처럼 오랜 세월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생물보다 뛰어난 생존력 덕분이다.

바퀴벌레는 자기 몸의 몇 천 배 높이에서 떨어져도 끄떡없으며 몸을 회전하는 운동능력도 매우 빠르다. 생존능력이 뛰어난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번식력도 대단하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1년 동안 낳을 수 있는 새끼의 수는 약 10만 마리에 달할 정도.

인간보다 125배 발달된 후각에다 절단 부분에 대한 신경차단능력으로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독극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그 자손들은 해당 독극물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며, 스스로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능력으로 바퀴벌레는 남극 대륙 이외의 모든 대륙에 서식한다.

바퀴벌레의 번성은 인간에게 재앙이다. 삼킨 음식을 다시 뱉은 다음 동로와 나눠 먹는 습성으로 인해 사람에게 식중독을 유발하며 40여 가지의 병원균을 전파한다. 또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탈피된 껍질은 천식과 아토피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생물학 및 기계공학자들의 실험실에서는 가장 환영받고 있는 동물 중 하나다. 바퀴벌레가 과학자로부터 찬탄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놀라운 달리기 능력 및 장애물 통과 능력 때문이다.

바퀴벌레는 자신보다 3배 더 높은 장애물을 넘을 때에도 단지 약 20% 느리게 움직일 만큼 달리는 능력이 우수하다.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인식해 행동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0.001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헤브로대학 연구진이 초당 250장의 장면을 찍는 고속카메라를 이용해 바퀴벌레의 달리기 실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바퀴벌레는 초당 25번의 방향 전환을 하면서 초속 1m의 속도로 내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 1.7m의 사람으로 치면 시속 150km의 속도에 해당한다.



바퀴벌레의 놀라운 능력

바퀴벌레가 이처럼 몸의 방향을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눈이 아니라 더듬이를 사용해 장애물을 발견하는 즉시 몸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퀴벌레는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을 주로 더듬이 청소에 소비해 더듬이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는 자기 몸보다 더 좁은 틈도 수월하게 빠져나간다. 키가 9mm인 미국 바퀴벌레는 높이 3mm 정도에 불과한 틈새나 폭 4mm도 통과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1/4까지 축소시킬 수 있는 놀라운 탄성 능력 덕분이다.

바퀴벌레는 풀과 같은 수직 기둥의 장애물을 통과할 때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회전(roll) 동작을 사용하기도 한다. 회전이란 비행기가 곡예비행을 할 때 전후 방향의 세로축에 대해 가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공중 동작을 말한다. 이때 바퀴벌레는 몸통을 틀어 가장 얇은 측면이 수직 기둥 사이로 들어가게 하고 다리는 수직 기둥을 밀어서 장애물을 통과한다.

미국 UC버클리 생물학과 로버트 폴 교수팀은 바퀴벌레의 이 같은 달리기 및 탄성 능력을 모방해 ‘크램(CRAM)’이라는 탐색로봇을 개발 중이다. 지난 2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시제품이 발표된 이 로봇은 높이 75mm의 손바닥만 한 크기로서, 좁은 틈을 만나면 바퀴벌레처럼 키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CRAM(Compressible Robot with Articulated Mechanisms)은 ‘관절 메커니즘을 갖춘 압축 가능한 로봇’이라는 의미다.

이 로봇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나 좁은 공간을 헤집고 다니며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압축하면 몸을 동그렇게 마는 아르마딜로처럼 되며, 걸을 때는 다리가 180°로 열려 마치 찰리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흉내 낸다.

개발 비용 일부를 미 육군에서 지원받은 크램은 구조가 단순해 가격도 100달러 내외로 저렴하다. 대량 생산을 할 경우 개당 10달러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크램에 카메라, 마이크, 기타 센서를 부착해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로

봇은 장애물을 피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크램처럼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로봇은 드물다.

이외에 재난 현장의 생존자 파악에 사용되는 사이보그 동물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개발되고 있는 동물도 바로 바퀴벌레다. 사이보그 동물이란 전자장치를 부착해 살아 있는 동물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신체 일부를 기계로 개조한 동물을 의미한다.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통제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A&M대 연구진은 바퀴벌레의 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전기자극 장치를 연결해 연구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바퀴벌레는 생김새도 움직임도 징그럽다. 그 끈질긴 생명력마저 징그럽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밟혀도 잘 죽지 않는 비결이, 또 자기 몸보다 작은 구멍을 문제없이 드나들 수 있는 비결이 재난 현장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ESC**

Culture

Exhibition

프랑스 국립 오르세미술관展

기 간 : ~ 2017년 3월 5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르세미술관은 기존의 운행하지 않았던 기차역을 개조하여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프랑스 미술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밀레의 이삭줍기, 고흐의 정오의 휴식을 비롯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르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작 중에서도 한국 관람객이 가장 사랑하는 걸작들만을 엄선한 전시이다.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로 빛나는 천재적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오르세미술관은 18~19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공존했던 미적 세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을 통해서 무수한 도전을 거듭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거장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www.s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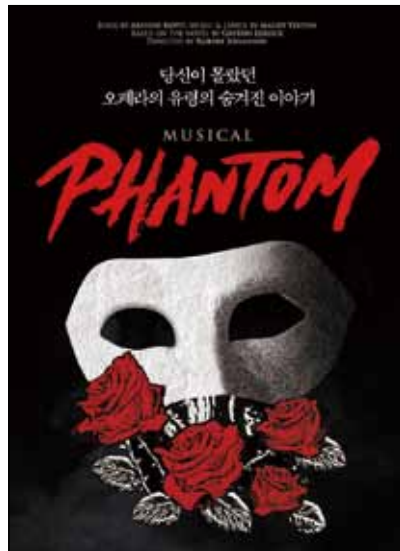
Musical

팬텀

기 간 : ~ 2017년 2월 26일 장 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지녔으나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오페라 극장 지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는 에릭은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 카를로타의 형편없는 노래 소리에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천상의 목소리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크리스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에릭은 그녀를 오페라 극장의 새로운 디바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 비밀스러운 레슨으로 그녀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크리스틴은 에릭의 도움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되고 허영심 많은 카를로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악한 음모로 크리스틴의 데뷔 무대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에 분노한 에릭은 카를로타에게 꿈썬 복수를 감행하고 경찰은 그의 비밀 은신처를 찾아 오페라 극장을 살살이 수색한다. 한편 에릭과 함께 그의 은신처에 숨어 있던 크리스틴은 그의 슬픈 과거와 감춰졌던 진실을 알게 되는데...

www.musicalphantom.com



Book

그럴 때 있으시죠? : 김제동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

잘 살고 있는 걸까? 인생이 불안할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운 날에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문득.

‘모두 내 얘기잖아?’ 서랍 속 비밀일기 같은 내밀한 이야기들

『그럴 때 있으시죠?』는 김제동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못다 한 이야기, 하나쯤 있다! 뭐가 불안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피곤해 죽을 만큼 일하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가족을 사랑하긴 하는데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애인 혹은 친구에게 뒤통수 맞고, 하루도 쉬운 날이 없지, 사는 게 참 별일이다 싶은 그런 날들,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서로 공감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

김제동 저 | 나무의마음



Movie

신비한 동물사전

‘해리 포터’ 마법의 시작!

신비한 동물들 탈출, 뉴욕 최대의 위기! 새로운 마법의 시대가 열린다!

1926년 뉴욕, ‘검은 존재’가 거리를 쏘대밭으로 만들고 미국의 마법의회 MACUSA의 대통령과 어둠의 마법사를 체포하는 오리의 수장 그레이브스가 이를 추적하는 혼돈 속에 영국의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가 이 곳을 찾는다. 그의 목적은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한 것.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신비한 동물을 구조해 안에 마법의 공간이 있는 가방에 넣어 다니며 보살핀다. 하지만 은행을 지나던 중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신비한 동물인 니플러가 가방 안에서 탈출을 하고 이 일로 전직 오리였던 티나와 노마지 제이콥과 엮이게 된다. 이 사고로 뉴트와 제이콥의 가방이 바뀌면서 신비한 동물들이 대거 탈출을 하고 그들은 동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 곳곳을 누빈다. 한편, ‘검은 존재’의 횡포는 더욱 거세져 결국 인간 사회와 마법 사회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뉴트의 소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상영중



KEPCO E&C News



● 2016년도 제7차 이사회 개최

2016년도 제7차 이사회가 10월 28일 경영진 및 비상임이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안),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 경북대학교와 기술협력 협의회 개최

회사는 9월 28일 경북대학교와 기술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4년 우리 회사와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간 체결한 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처음으로 열렸다.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경북대학교 양승한 공대학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기술개발 및 사업분야, 산학협력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고, 경북대학교는 기계공학부, 화학공학부, 응용화학과 순으로 전문 연구분야 및 연구수행 현황을 공유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들과 지속적인 기술협력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은 물론 고급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실 청렴교육 실시

감사실은 9월 27일 이동근 상임감사와 함께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실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의식의 주입형 교육을 탈피한 체험·실천형 청렴프로그램 확대의 일환으로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에 위치한 청암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청암사 승가대학 태극권 사범인 도국 스님의 지도에 따라 태극기공체조 수련을 실시했다. 수련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쌓인 정신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를 단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어서 검소함의 미덕이라는 주제로 발우공양이 진행되었다.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비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사소한 한끼 식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끝으로, 청암사 승가대학 상덕 주지스님은 맹구우목(盲龜遇木 : 눈먼 거북이가 떠다니는 판자를 만난다는 것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명심하고 항상 바른 수행과 삶을 살아야 한다)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상덕 스님은 청빈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생각을 현재에 집중하면서 매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투명한 사회로의 도약을 선언한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청렴은 공공기관 직원의 필수 덕목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줄 것”을 강조하고, 향후 보다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사랑의 헌혈행사로 이웃사랑 실천

회사는 9월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생명존중 및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헌혈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회사의 누적 헌혈 참여자 수는 1,231명이다. 이날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는 임직원 및 직계가족, 병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 실시 및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혈액수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 국제표준정보보호경영체계(ISO27001) 사후심사 인증 유지

우리 회사가 국제표준정보보호경영체계(ISO27001) 사후심사 인증유지에 성공했다.

이번 심사는 6개월마다 수행되는 현장심사를 통한 인증유지 과정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이 실시했다. 우리 회사는 2014년에 ISO27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ISO27001 사후심사는 본사와 대전 및 영광현장에서 물리적 보안, 문서관리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인적 보안 분야의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경영진을 비롯하여 각 부서 분임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들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ISO27001 인증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ISO27001 인증유지를 통해 더욱 강화된 정보보호경영체계를 갖추으로써 대내외 회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앞으로 점검결과 개선사항들을 조치하고, 2017년 1월로 예정된 ISO27001 갱신심사를 미리 준비하여 갱신인증 취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광원 단장, 서울대학교 원자력고급과정서 특강 실시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주제로 강의 –

이광원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9월 2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0기 서울대학교 원자력 고급과정'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고급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후원 아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교육이다. 강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설계'라는 주제에 따라 △세계 주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현황 △소형 모듈 원자로 목표 시장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요건 △한국전력기술의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전략 및 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이광원 단장은 강의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잠재적 시장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는 만큼 우리도 시장 선점을 위해



KEPCO E&C N e w s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의 대형원전을 건설하기 힘든 원격지의 분산전원/열공급, 산업용 공정열 공급, 해양 원자력 시스템 등에서 좋은 대안으로 특수 시장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노력을 설명하며 미래형 원자로 설계를 위한 회사의 도전과 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피력했다.

● 원자력본부, 주요사업 현안점검 워크숍 개최

원자력본부는 10월 20일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 및 국내 현장소장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주요사업 현안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원자력본부 사업실적 수주 및 매출 점검, 주요업무 추진현황, 경영평가 수검일정 안내 및 원자력 주요사업의 Best Practice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에 대한 조치경과 발표를 통해 위험요인 발생에 대비한 원전설계 적용기준 및 원전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원자력본부 3분기 주요사업 실적 및 현안사항을 기술그룹 및 사업부서와 공유하는 자리로서, 원자력본부 주요 직위자를 중심으로 원전설계 주요사업의 Best Practice 조기 발굴을 통해 경영평가 수검의 사전 준비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원자력본부는 워크숍에서 토의된 주요 사항을 공유하여 2016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최근 실시한 원자력본부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2017년도 중점 업무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원전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중장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술력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원자로설계개발단, 경영목표 점검 및 설정 워크숍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은 10월 7일 이광원 단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책임자 및 설계그룹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2017년 경영목표 점검 및 설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로설계개발단 주요경영목표(KPI) 항목 중 2016년도 사업수주 및 매출 실적 점검과 201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사업개발 환경 및 전망 △중장기 연도별 매출목표 △매출목표 달성 전망 및 계획 수립방안 △부서별 향후 사업개발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 전략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광원 단장은 지진 및 부지의 용도변경 재심의 등 외부환경에 의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계통설계 계약 지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분기 중 추진하는 한수원 연구과제투 자활성화 과제 등 사업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재무계획과 연계된 사업수주와 매출 등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제5회 과도안전해석기술 워크숍 개최

제5회 과도안전해석기술 워크숍이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과도안전해석 수행 유관기관 간 기술교류 및 현안해결 방안 공유의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회사 안전해석그룹의 과도해석분야, 사고해석분야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안전해석처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요구과 출력여유도 결정 및 연계절차 수립방법 △증기관파단사고 설명 △공동원인고장을 포함한 원자로냉각재유량감소 사고와 반응도 및 출력분포 이상 사고 등 양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 및 인허가 사항과 각 기관별 Non-LOCA 해석 방법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관련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과도안전해석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정보교류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안전해석 관련 기술적 협력 업무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양사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서부발전 직원 대상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

회사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재개발교육원에서 한국서부발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전소 설계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발전소 설계 기본개념 이해와 전력그룹사 발전 운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서부발전의 기계 및 전기제어분야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1,2차에 걸쳐 플랜트 기계배관 및 전기제어 설계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15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발전회사 인재육성 지원 및 발전플랜트 해외수출 등 공동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자력 안전문화 및 현장 안전보건환경 교육

회사는 원자력 안전문화 및 안전보건환경(HSE) 교육을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원전현장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월성, 고리/신고리, 한빛, 한울/신한울 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원자력 안전문화 인식 제고와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원자력 안전기준 및 안전문화 사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 제도 및 회사 시정조치 프로그램(CAP)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현장 안전보건환경 교육은 사례중심으로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실습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겸직이 가능한가요?

협력업체 임원 겸직 권유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존속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직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기타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협력업체 임원 겸직 권유



임원으로 겸직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이사로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은 이해상충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Inside Out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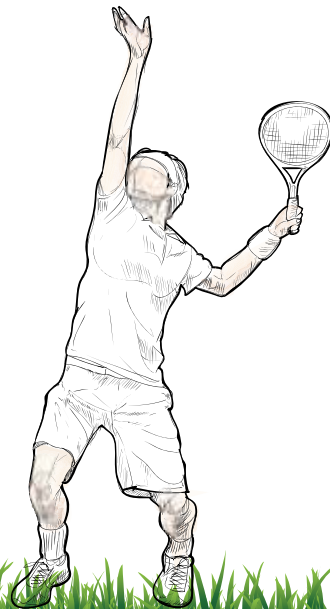
동호회동정

테니스회(KTC)



테니스회에서는 '2016년도 한기 추계 테니스 대회'를 10월 8일 김천사옥 테니스 코트에서 개최하였다. 직원간의 단합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신울진현장에서 참석한 직원 및 직원가족을 포함한 21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회원 간에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대회는 금배부와 은배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조별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입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배부 및 은배부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자들이 결정되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구분	금배부	은배부
1위	김기혁 부장(원자력배관기술그룹) 이상록 차장(원자력배관기술그룹)	조덕재 차장(원자력설계품질점검팀) 김현수 대리(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2위	문일환 부장(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유석 부장(원자력배관기술그룹)	김진영 부장(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소순기 과장(원자력배관기술그룹)
3위	박상현 부장(원자력사업관리실) 송재영 차장(플랜트사업책임자실)	김현우 과장(플랜트사업개발처) 곽병기 대리(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4위	이정일 부장(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전진호 부장(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최익현 부장(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이은숙(회원가족)



사우 애경사

결혼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전병렬 부장 자녀 : 10월 15일 한국민속촌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신지훈 사원 : 10월 15일 여의도웨딩컨벤션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조재웅 대리 : 10월 16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이윤복 부장 자녀 : 10월 22일 서울여성플라자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김경완 사원 : 10월 22일 사이닝스톤
- ▶ 원전기기안전센터 이훈영 사원 : 10월 22일 KW컨벤션센터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신중교 처장 자녀 : 10월 22일 라온스퀘어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김세준 사원 : 10월 2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부음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김현정 차장 모친상 : 9월 19일 삼성서울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실 박용성 부장 장인상 : 9월 24일 성애병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임순호 부장 장모상 : 9월 2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 원자력기술그룹 임혜인 사원 부친상 : 9월 29일
- ▶ 품질안전환경처 김진국 부장 장인상 : 10월 5일 수원 중앙병원
-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양정배 부장 장인상 : 10월 6일 제주대학교병원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이상제 처장 장모상 : 10월 7일 서울성모병원
-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정찬영 처장 모친상 : 10월 9일 강남성모병원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정홍 부장 부친상 : 10월 11일 서울직접자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2016 추계 문화 탐방 행사 안내

- 행 사 일 : 2016년 11월 9일(수)
- 탐 방 지 : 전쟁기념관(용산 삼각지)
- 참가회비 : 없음
- 접수기간 : 11월 7일(월)까지

결혼

- 김택희 회원 자녀 : 10월 1일 더플라자호텔
- 최성표 회원 자녀 : 10월 9일 엘타워
- 이상하 회원 장남 : 10월 22일 아펠가모
- 서인섭 회원 자녀 : 10월 23일 포항 티파니웨딩
- 이진표 회원 자녀 : 10월 29일 강남 피에스타
- 이상섭 회원 자녀 : 10월 29일 서초 엘타워

부음

- 장상원 회원 모친상 : 10월 25일 부산 BHS 한서병원



허리 디스크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배상액

Question

신경성형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액은?

신청인(남, 30대)은 외상없이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3차례 수핵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추간판염으로 진단받았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다른 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시술받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의 책임과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Answer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시술한 점, 시술 후에 발생한 감염에 대한 책임

추간판은 수핵(젤라틴 성분의 조직)과 섬유륜(섬유테, 추간판 외부를 양파껍질처럼 원형으로 등글게 싸고 있는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관절연골로서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외상이나 퇴행성변화에 의해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안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튀어 나와 주위 조직(특히 척수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일으킨다. 이러한 통증, 요통 및 주변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반응이 없어지고 수핵의 수분이 감소되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 건의 경우도 외상없이 갑자기 발생한 통증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나 안정, 소염진통제 복용 등을 6~12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원칙이다. 수핵성형술이나 신경성형술은 수술에 준하는 침습적 치료이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증상의 재발이나 감염발생,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생략하고 침습적인 시술 전에 위험성,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세 차례나 시술을 한 점, 마지막 시술 후 염증반응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시술은 염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시술에 따른 의사의 책임(설명미흡 및 주의소홀)이 인정돼, 시술비용(약 900만원)의 60%와 위자료 200만원 총720만원에 합의했다. **ES&C**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란?

변성된 추간판(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돌출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돌출 빈도가 높아지는 노화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고 신경근이 이완되어 신경근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된다. 수핵이 신경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경근 길이가 길어지는 생체 특성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를 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맙구나

찬이슬 맞으며 피어나
메마른 봄바람에 시달리고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맞아도
끝내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정말...
정말 고맙구나! 수고했다.